



#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 수단 (SUDAN)

기독교 박해지수  
**5** 위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 중요한 발견

수단에서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2022년 11월 이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억압적인 법과 정책에서 벗어난다는 국제적인 인식과는 달리, 현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암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군대는 쿠데타를 일으켜 연립정부의 민간 부분을 제거하고 총리를 해임했다. 쿠데타 이전에도 수단 정부는 이미 과거로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였다. 2022년 8월에는 '공동체 치안'이라는 명목으로 간접적으로 '도덕 정책'을 재도입했다. 또한 기독교인 박해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전 알-바시르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군대에 의해 권력을 되찾았다.

둘째, 알바시르 정권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기독교인 박해에 대한 발언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과 아프리카계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극단주의 단체들의 지속적인 존재와 국제 사회의 지원 부족은 그들이 직면한 위협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셋째, 잔자위드 민병대는 여전히 활동 중이며, 전반적인 공포와 억압의 분위기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4월 신속지원군(RSF)과 수단 군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이로 인해 많은 사망자, 이재민, 파괴가 발생했다. 교회들이 점거되고 공격을 받아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내부 충돌로 인해 수단은 더욱 깊은 위기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내러티브와 수단의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 간의 큰 괴리를 보여주며, 개혁에 대한 약속이 위협과 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허하게 들리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150개 이상의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되었다.

## 수단 (SUDAN)

### 국가 정보

지도자 : 압둘 파타 알-부르한 장군  
(또는 압둘 라흐만 알-부르한으로도 알려짐)

인구 : 49,358,000 명

기독교인 수 : 2,028,000 명<sup>1</sup>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2,028,000	4.1
무슬림	45,501,000	92.2
민족 종교	1,299,000	2.6
불가지론자	448,000	0.9

출처<sup>2</sup>

수단의 기독교인들은 특히 2021년 10월 쿠데타 이후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국제 사회는 긍정

적인 변화를 시사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자들과 아프리카계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와 끊임 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군대는 권력을 장악하며 민간 주도의 과도 정부를 사실상 해체하고, 기독교인 박해로 악명 높은 알-바시르 정권의 인사들을 재임명했다. 더욱이 2022년 8월 정부가 '공동체 치안'이라는 명목으로 도덕 정책을 은밀히 재도입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수단의 복잡한 역사는 다르푸르 위기, 2011년 남수단의 분리, 누바 사람들의 고난 등으로 특징지어지며, 종교적 및 민족적 갈등으로 깊이 분열된 나라가 되었다.

<sup>1</sup>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sup>2</sup>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인구의 대다수가 무슬림인 수단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미 어려운 환경이었다. 기독교인들은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카르툼과 같은 도시에 콥트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가 잘 확립되어 있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 및 다양한 개신교 교단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특히 심각한 박해를 당하며, 정부와 지역 지도자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키우거나 기독교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자제한다.

2021년 10월 군사 쿠데타는 지속적인 시위와 불안을 초래했으며, 이는 2023년 4월 신속지원군(RSF)과 수단 군대 간의 폭력적인 충돌로 절정에 달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광범위한 사망자, 이재민 및 파괴를 초래했으며, 2023년 7월 기준으로 약 290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유엔난민기구(UNHCR)는 보고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표적이 되며 점거되고 기독교인들이 공격당했다.

잔자위드 민병대와 기타 급진 단체들에 의해 교회가 점거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박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다. 이 상황은 개혁에 대한 약속과 현지에서의 위협 및 폭력 증가 간의 큰 괴리를 보여준다. 수단의 기독교인들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며, 진보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제 사회의 낙관적인 약속과 민주적 통치를 목표로 한 과도 정부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수단은 위기와 심각한 억압 상태로 되돌아갔으며, 특히 소수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퇴보는 어떠한 진전도 약화시키며 수단에 대한 국제적 내러티브를 재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압박과 폭력은 항상 수도 외곽 지역에서 더 심했다. 일상 생활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괴롭힘과 위협 외에도, 무력 충돌로 인해 다르푸르, 누바 산맥, 블루 나일 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 누가 영향을 받는가?

### 해외 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해외 거주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은 주로 서방 국가들과 남수단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그들의 교회는 등록을 거부당하고 많은 경우 철거에 직면했다. 일부 해외 기독교인들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및 구금되고 있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콥트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은 역사적인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억압과 독재적인 편집증으로 인해 침해를 겪고 있다. 전 대통령 알-바시르는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교회들을 포함한 교회 철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 기독교 개종자들

이 그룹은 주로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심한 압력과 폭력을 겪고 있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수단의 침례교, 복음주의 및 오순절 교단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의 억압과 독재적인 편집증의 형태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 이 그룹은 또한 대부분의 교회가 폐쇄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 이슬람 억압

1989년 쿠데타로 알바시르 대통령이 지도자로 임명된 이후, 무슬림 형제단의 이념은 수단 정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 정권은 이후 나라 내 다른 종교 단체들을 희생시키면서 이슬람 국가를 형성하려고 했다. 이 정권은 급진 이슬람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하는 등), 테러를 후원하며 무기를 밀매한 혐의를 받았다.

### 독재적 편집증

수단은 60년이 넘는 독립 이후로 민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남부와의 독립 분쟁이 마침내 종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푸르 위기와 친정부 및 반정부 민병대 간의 다극적 내전은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 정부 지도자들은 하르툼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서방적 선동적 수사를 사용했다. 이는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서방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면서 반기독교 폭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 조직적 부패와 범죄

알바시르 대통령 하의 수단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며, 부족 민병대 동원도 포함되었다. 이들 민병대 중 다수는 인권 침해를 저질렀고, 분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비아랍인을 인신매매하기도 했다. 기독교인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져, 이러한 이슬람주의 단체들에 의해 특히 잔혹하게 공격을 받았다.

### 민족 종교적 적대감과 부족 억압의 결합

수단 인구는 주로 북부의 아랍계와 남부의 아프리카계 등 약 19개의 서로 다른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랍계는 독립 이후 이슬람과 아랍 우월주의 및 민족주의 정책을 추구해 왔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여성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2020년에는 배교법이 폐지되고, 여성들이 남성 친척의 허가 없이 여행할 수 있으며, 여성 성기 절제(FGM)가 금지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COVID-19와 악화되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가정 내 폭력, 특히 신체적 및 성적 폭력, 강제 결혼이 증가했다. 여성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한 여성들은 여전히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강간, 신체적 폭력, 강제 결혼 및 가정 폭력의 위협에 처해 있으며, 사건을 신고하는 것도 여전히 어렵다.

###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상속권 또는 재산 거부
- 종교적 의상 강제 착용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구금(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성적 / 언어적

### 남성

폭력적인 이슬람 무장 활동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이는 박해 증가로 이어졌다. 수단 정부는 남성 기독교인들을 '테러리즘'을 포함한 다양한 심각한 허위 혐의로 겨냥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빈번한 타겟이 되며, 정부 보안 요원들은 그들의 활동을 매일 감시한다. 기독교 남성과 소년들, 특히 개종자들은 구타, 감금, 살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강제 이주에 취약하다. 개종자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으며, 박해의 압박으로 인해 집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비즈니스/직업/업무 접근에 의한 경제적 괴롭힘
- 허위 혐의
- 마을/국가를 떠나다로 강요
- 정부에 의한 감금
- 폭력 - 사망 / 신체적



##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 점수
2025	5	90
2024	8	87
2023	10	83
2022	13	79
2021	13	79

수단의 점수는 WWL 2024에서 3점 증가한 90점을 기록했으며, 이전 해에는 이미 4점 상승했다. 이 증가는 주로 폭력의 확산 때문으로, 폭력 점수는 WWL 2024의 13.3점에서 16.1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평균 압박 점수도 약간 상승하여 14.8점을 기록했다. 2023년 군대와 신속지원군(RSF) 간에 발생한 폭력 사태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과 그들의 예배 장소 점거로 이어져 교회 출석이 점점 더 어렵고 위험해졌다. 내전은 또한 다른 폭력 단체들이 기독교인을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3년 12월:** RSF는 수단의 와드 마단(Wad Madani)에 있는 콥트 정교회 수도원을 공격하고 군사 기지로 변환했다. 이 공격 이후로 RSF 군인들이 수도원 주민들을 괴롭힌 영상을 공개하면서 최소 5명의 사제와 5명의 신학대학생들이 실종되었다.
- **2024년 1월:** 신속 지원군(RSF)이 수단의 와드 마단(Wad Madani)에 위치한 복음주의 교회를 방화했다. 이 교회는 제즈이라 주에서 가장 큰 종교 시설 중 하나였으며, 1939년에 지어졌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강제로 자신의 국가를 떠나야 하는 기독교인	교회나 기독교 건물에 대한 공격 또는 폐쇄	살해당하는 기독교인	국내에서 강제 이주된 기독교인
2024	1000*	182	44	1000*
2023	10*	100*	5	1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에 기반한 폭력의 일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역학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해야 한다.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상징적인 수치(10, 100 또는 1000)가 제공되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10,000, 100,000\* 및 1,000,000\*과 같은 상징적인 숫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개인 영역

기독교인들은 안전을 위해 지역 사회와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피한다. 이는 정부의 체포나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지역 사회와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에 의해 강화된다. 성경과 같은 기독교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특히 무슬림 가족 내 개종자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자료가 발견되면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으로 돌아가도록 심각한 압력을 받게 된다. 저항할 경우, 재산을 잃거나 지역 사회에서 추방당하거나 추가적인 폭력 행위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 가족 영역

수단에서 기독교 가정을 양육하는 것은 정부, 지역 사회 및 시민 폭력의 압박으로 인해 어려운 일이다. 기독교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사회적 규범에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이 무슬림과 결혼하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독교 어린이들은 가족의 신앙 때문에 종종 괴롭힘을 당하며, 개종자가 기독교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 공동체 영역

수단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공동체의 압력은 엄청나다. 정부의 엄격한 이슬람 법 해석에 기반한 공공 질서 법이 하르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부적절한 의상'과 다른 '명예, 평판 및 공공 도덕의 범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구실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체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깨끗한 음용수와 같은 공동체 자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특히 도시 외곽 지역에서 더욱 그렇다. 사회와 정부의 일반적인 태도는 수단 시민이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독교인들이 공동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을 격하시키고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 누바 산맥과 남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정부 군대의 공중 폭격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민병대는 기독교인을 찾기 위해 가택 수색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가 영역

기독교인들, 특히 남수단 출신과 서구 선교사들은 정부 보안 요원들에 의해 자주 감시를 받는다. 과도 정부가 이 변화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는 큰 희망을 주고 있다. 국가 기관에 비판적이거나 그들의 작업이 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제약과 금지가 발생한다. 많은 국제 비정부기구(NGOs)는 기독교 단체로 알려진 경우, 수단에서 금지된다.

## 교회 영역

수단에서는 교회가 당국과 사회 전반으로부터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다. 수단 당국자들은 종교 지도자 선출에 지속적으로 간섭한다. 기독교인들은 당국과 폭도들에 의해 교회를 짓고 유지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 정부의 동의 없이 수리를 시도하면 기독교인들이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 여러 공격이 지역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되어 폭동, 폭격 및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교회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일어났다. 이러한 폭력은 외딴 지역에서 더 흔하다. 수단의 인프라로 인해 이러한 지역에 지원과 국제 관찰자를 보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처벌 없이 폭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수단은 다음의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3. 아동 권리 협약(CRC)

수단은 정기적으로 기독교인의 다음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아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 교회 건물이 공격받고 불에 탄다 (ICCPR 제18조)
-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바지를 입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들은 신성모독으로 기소될 수 있다 (ICCPR 제19조)
- 기독교인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주 괴롭힘을 당한다 (CRC 제14조 및 ICCPR 제18조)

## 수단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수니파 이슬람 외의 모든 종교 단체는 신앙을 실천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오픈도어의 수단 사역

오픈도어의 수단에 대한 비전은 다음을 통해 박해에 굴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회복력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 박해 대비 프로그램
- 제자도 향상
- 경제적 권한 부여 촉진

